

# 제주출신 축구 A대표 발탁 남녀 '부침'

### 연령대별 명맥 유지 속 홍정호·지동원 등 후계 없어 여자팀은 임선주 불박이 속 고민정·강지우 등 '쑥쑥'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차원에서 내년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까지 본격 추진되면서 축구 국가대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 하면 제주출신 축구 국가대표는 얼마나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예전같지 않은 반면 여자는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벤투호에는 제주출신 선수가 1명도 없다. 김천삼부에서 뛰고 있는 고승범(제주서초 졸업)

이 지난 1월 6일 터키에서 진행된 2022 카타르 월드컵 대비 전지훈련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처음으로 벤투호에 승선했다. 1월 21일의 몰도바전에서 후반 26분에 교체 투입되면서 A매치 데뷔에도 성공했다.

가장 화려했던 때는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이었다. 당시 홍정호, 지동원과 서귀포고 출신 골키퍼 정성룡, 제주유나이티드의 구자철 등이 맹활약했다. 2015년 슈틸리케호에 승선했던 K리그1 강원FC의 임창우(제주서초 졸업)도 뺄을 수

없으며, 앞서 2022 월드컵 4강의 주역 최진철도 있다. 청소년대표 등 연령대별로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A대표팀에 발탁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참고로 U23에는 김륜성(김천상무, 제주서초 졸업), U19엔 강상우(전북 영생고, 외도초 졸업)이 포함돼 있다. 또 U16 대표팀에도 울산 현대고의 김승현(제주서초 졸업)과 문지원(제주Utd 12), 제주Utd 18의 이제모(화북초)가 뛰고 있다. 이들이 A대표팀으로 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자 선수들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여자팀은 최근 몇년 새 정상급 선수들이 발탁되면서 제주축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대표팀 불박이 센터백 임선주(현대제철)를 주축으로 A대표팀에 처음 이름을 올린 뒤 데뷔골까지 터트린 고민정(창녕WFC)이 현재 뛰고 있다. 강지우(대전스포츠토토)도 앞서 대표팀에 합류했다. 그 뒤를 U20 여자월드컵 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김은주(울산과학대)와 고다영(대전 대덕대)이 받치고 있다. 고민정과 김은주, 고다영은 2013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준우승의 주역이다. 임선주(노형초 졸업)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도남초를 졸업했다.

조상윤기자

## ■ 2022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오연주·부서연 환상의 호흡 '금'

오연주·부서연(제주여고)이 2022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오연주·부서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남 밀양시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2학년 복식에서 동급 최강의 실력을 과시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오연주·부서연은 지난 5일 박주은·구서연(김천여고)과 맞붙은 대회 결승전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2-0(22:20, 22:20)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연주·부서연은 지난 5월 열린 중별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오연주는 또 김민상(제주사대부고)과 짝을 이룬 2학년 혼합복식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며 복식전문으로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조상윤기자



오연주(사진 왼쪽), 부서연 선수.

이와 함께 김현빈(제주사대부고)·하지윤(제주여고)은 고등부 3학년부 복식에서, 이민욱(제주사대부고)은 2학년부 남자단식에서 3위에 입상했다.

중등부에서도 한연우(제주사대부중)·고가영(제주여중)이 2학년부 혼합복식에서 2위를, 강성빈(제주사대부중)·임현아(제주여중)가 1학년부 혼합복식에서 3위에 올랐다.

조상윤기자

## 제주 남기일 '이달의 감독상' 최다

### K리그 월 단위 시상... 최강희 감독과 7회 공동 1위 이달의 선수상 세징야 최다 4회·대구도 가장 많아

제주유나이티드의 남기일 감독이 최강희 감독과 함께 K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가장 많이 받은 감독으로 밝혀졌다.

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2022시즌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월 단위로 주는 상은 해당 월 K리그 1, 2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감독에게 수여하는 '파라다이스시티 이달의 감독상'을 비롯해 'EA K리그 이달의 선수상', 승리 팀 중 가장 역동적인 골을 넣은 선수가 받는 '게토레이 승리의 순간' (G MOMENT AWARD), 가장 눈에 띈 영플레이어를 뽑는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최고의 퍼포먼스를 가리키는 '휴테크 안마의사 이달의 퍼포먼스상' 등이다.

2014년 3월 신설된 '이달의 감독상' 부문에 있어 개인통산 최다 수상자는 남기일 감독과 최강희 감독(7회)이었으며, 3위는 조성환·황선홍(4회) 순이었다. 역대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구단은 전북 현대(12회)로 최강희(7회), 모라이스

(3회), 김상식(2회)이다. 최고의 선수를 뽑는 '이달의 선수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구단은 대구(6회)였으며, 전북(5회), 울산(4회), 인천(3회) 순으로 나타났다. 세징야가 개인 통산 최다인 4차례 수상했다.

올 8월에는 조성환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고, 수원FC의 김현과 강원FC의 김진호가 각각 '게토레이 승리의 순간'과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올 시즌 각 상 수상자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양현준(강원FC)과 이승우(수원FC)로, 이들은 3개 부문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양현준은 이달의 선수상을 제외한 모든 상을 받았고, 특히 영플레이어에는 리그 최초로 3차례(4월, 6월, 7월) 선정됐다. 이승우는 나이 제한으로 후보가 될 수 없는 영플레이어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을 모두 한 번씩 받았다.

조상윤기자 sycho@halla.com



3연타석 홈런 등 하루에 6안타 폭발 6일(한국시간) 미국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을 파크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 9회초에 토론토의 보 비넷(24)이 안타를 치고 있다. 비넷은 이날 더블헤더에 출전해 1차전에서 5타수 3안타 2타점, 2차전에서 5타수 3안타 3홈런 5타점 3득점의 맹활약을 펼쳤다. 연합뉴스

## ■ 문체부장관배 철인3종 선수권 단체전 중문고 현봉효·황창연 동메달 획득

중문고의 현봉효(3)와 황창연(1)이 지난 3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제2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철인3종 선수권대회 남고부 단체전 경기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단체전 경기는 이번 대회에 신설된 종목으로 학교단위로 팀이 이뤄져 수영 300m, 사이클 10km, 런 2km의 거리를 완주한 상위 2명 선수의 기록을 합산해 순위가 매겨진다. 중문고의 이 대회 기록은 1시간 6분 09초로 경기체고(54분 42초) 중



황창연(사진 왼쪽), 현봉효 선수.

남체고(57분 46초)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조상윤기자

## 오예진 사격 '은' 명중

오예진(제주여상 2·사진)이 2022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은메달을 명중시켰다.

오예진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본선 568점으로 2위로 올라 결선(파인널경기)에서 254.6점을 획득하며, 250.5점을 쏜 허지연(전남체고)과 금



메달 매치에서 17대15로 아깝게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오예진은 지난 6월 제4회 창원특례시장배에서 개인우승을 비롯해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사격대회 개인우승, 제46회 회장기 전국중고등학생사격대회 개인우승을 차지했다.

조상윤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광장 8:25 아침매일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보다 물어보세요 11:00 그레이트 텐테리의 세상을 바꾼 1년 11: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불만한 아침 M&W 1부 8:10 해 불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30 오라차차 내 인생(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자구초 뉴스 11:00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0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생활속 오늘 아침 8:50 비밀의 집(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푸리가 식사교실 11:15 헬로키즈 클로빌 동물 뉴스(재) 11:45 똑딱꾸조대 2(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로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실미나는 오늘 11:00 에-컬러리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8:00 딩동댕 유치원 8:2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9:40 유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3:00 당신의 킬러충전소 15:35 푸리가 전사들 16:25 슈퍼두더 일글리시 17:30 슈퍼두더 세울 18:00 생활속 워터즈 해결단(재)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중계방송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10 열린채널 14:50 어린이 동물터비 15:20 팔도방송(재) 16:00 시사건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5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재) 13: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보다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30 TV 유치원 16:00 신상출시 펀스타랑(재) 17:00 마라엔리 2 17:15 뽀빠이 포크가족 17:30 팔팔 영화가 좋다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이 맛에 산다 12:55 중계방송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경향호 경제부총리 14:00 내오세모(재) 15:00 제시카 15:30 휴먼다큐 병영의 달인 16:00 와이드 정보소 알고 보면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편먹고 공치리4 전승부(재)	12:00 SBS 12 뉴스 12:5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14:00 내오세모(재) 15:00 제시카 15:30 휴먼다큐 병영의 달인 16:00 와이드 정보소 알고 보면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편먹고 공치리4 전승부(재)	<b>KCTV</b> 8:00 문화카페 8:30 여왕의 레시피 9:30 JDC 글로벌 아카데미 10:30 배워봅서 관공중국어 12:30 탐나는 보이스 14:00 문화카페 15:20 JDC 글로벌 아카데미 16:10 KCTV 디뉴스스페셜 17:00 KCTV 뉴스 17:10 배워봅서 관공중국어 19:00 KCTV 뉴스7 <b>제주CBS FM</b> 93.3MHz 90.9MHz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김서훈입니다 12:00 CBS뉴스종합뉴스 14:05 송정미의 속속속 17:05 시사세거전 제주 17:30 생명의 생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관승부 <b>TBN제주교통 FM</b> 105.5MHz 90.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2:00 TBN 처치처 16:00 TBN 제주대행진 18:00 달리는 라디오 20:00 탐나는 가요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집중단단 제주 20:30 오라차차 내 인생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황금기연 20:30 옥탑방의 문제아들 21:50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23:00 스튜디오 K	18:05 TV매거진 타임라인 19:50 비밀의 집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전설거리 출신원 22:30 라디오스타	18:50 생활속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올 메리는 그녀들 22:40 편먹고 공치리 4 전승부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7일**

김중상 지단(星) 작명학박사  
경기도 평곡교수(010-5233-6136)

**36년** 추진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 중요 계약이나 만남은 내일로 연기하라. 48년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자제하며 사생활을 논하지 마라. 60년 타이밍이 맞으면 호재. 신중함이 필요. 72년 강한 의욕과 독단적 추진은 오히려 해가 된다. 84년 긴 생자 끝에 악수를 두는 격. 신속하고 적극성이 필요한 때.

**42년** 새로운 것을 좋아하면 구설 또는 불화가 생기니 이성교제는 신중. 54년 투기는 반길반홍. 신중함 필요하고 내기는 불리. 66년 한 박자 늦은 여유를 갖고 심호흡으로 스트레스 해소. 78년 친목 또는 소꿉으로 귀가 늘어진다. 과소비 주의. 과음하지 마라. 90년 형제제대 또는 친구에 대한 회소가 있다.

**37년** 사소한 의견충돌이 다툼이 될 수 있다. 먼저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 49년 반가운 손님이 방문하거나 형제간 단합이 있다. 61년 갈 곳이 생기거나 친지나 동료의 손님을 맞이한다. 73년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이익이 생긴다. 계약건은 시간 활용이 중요. 85년 미래에 대해 고민.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

**43년** 주변환경 탓을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꾸준히 하라. 55년 재물의 지출이 따르니 구매 증등은 삼가하고 조가 귀가. 67년 급히 서두를 일이 생긴다. 소송건에서는 불리. 79년 상대를 신뢰하면 그만큼 나도 신뢰를 받을 수 있으니 청정에 안색하지 마라. 91년 다양한 생각으로 고민이 많다. 선악이 생긴다.

**38년** 사사로움 감정이나 오히려 언쟁하니 주의하면 해소된다. 50년 자식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하는 업무에 성과가 있다. 62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 길. 74년 항상 성실한 마음을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내일이 전념하라. 86년 전문직 종사자는 이익이 따르고 직장인은 인정받는다.

**44년** 마음의 문을 열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유지하라. 56년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이익이 생긴다. 계약건은 시간 활용이 중요하다. 68년 많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상대를 칭찬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 80년 이성운이 오고 소개가 이루어지니 웃음을 써야 한다. 92년 재물지출이 많다. 안전사고 조심.

**39년** 자식 때문에 자금지출이 발생된다. 51년 부하직원의 해탈사나 생산기계의 고장으로 필요 자금이 소모. 63년 금전적인 문제로 사비나 다툼이 오거나 금전거래는 보류. 75년 매매나 문서를 주고 받을 일이 찾아온다. 87년 의욕, 자신감이 저하되고 새로운 변화를 원함.

**45년** 동료간 협력 협조할 일이 생기고 기쁨이 두배가 되는 즐거움이 있다. 57년 친목 또는 모임이 생긴다. 귀가는 늦지 말 것. 음주는 자제. 69년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려면 전문자격 취득도 필요하다. 81년 직장인은 기쁨이 학생은 행사에 참여한다. 93년 투기나 도박에서 불리하니 관심 갖지 마라.

**40년** 마음을 다래줄 벗이 필요하고 부탁을 받을 일이 생긴다. 52년 집안일로 외출 또는 여행을 한다. 구입물품이나 자금 분실 조심. 64년 답답할 땐 슬픔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76년 맞지 않는 허위정보에 귀를 기울이면 손실만 초래하니 호기심 자제하라. 88년 새로운 방향이나 방법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46년** 매매, 교환, 이동 등 문서 변화가 온다. 좋은 일이 생긴다. 58년 외모변화를 주고자 하며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며 멋을 낸다. 70년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니 대중 속에 나를 알리는 것도 지혜이다. 82년 이성문제로 갈등. 충동성이 강하게 나를 자극하기도 한다. 94년 친구의 도움으로 기쁨이 있다.

**41년** 상대자와 언쟁이나 다툼은 피할 것. 자랑하는 일은 불리. 53년 매매, 이사, 가게오픈 등에서 기쁨이 오니 기회를 활용할 것. 65년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여유가 필요하다. 77년 낙엽을 피하는 조심성이 필요할 때. 의견 대립은 피하라. 89년 이성관계 불협화음. 손재수 조심.

**47년** 문서운은 길하나 세밀한 검토는 필수. 육석 가리는 지혜 필요. 59년 과욕을 부리면 후회. 바쁘게 활동하라. 71년 직장문제로 합들어진다. 남편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 83년 작은 일로 마음이 상치기 되니 조급함을 떨쳐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95년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라.